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지식 확장

자치도, 도지사·실국장·팀장급 이상 직원과 새로운 전북 포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회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2월 1차 새

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이종희 석좌교수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 등을 비롯 청정수소클러스터 예타사업 기획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을 준비하자"며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산업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으로 수소산업의 성장 생태계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이종희 석좌교수는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탄소중립이다"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장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린수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단지 조성 등 우리도 그린 수소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미래 그린 수소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회를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22일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월 1차 새로운 전북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간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희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석좌교수로부터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허가 '한 방에 해결'

전북자치도,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운영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민선 8기 이후 전북자치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도·시군 확대 시행, 창업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2022년 7월 6,450억원→2024년 8,450억원) △두산, 삼성, LSMmM 등 기업 투자유치 확대(2022년 2조원→2023년 11조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북으로의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에 와서 기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업가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한달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해 민원 해결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신속처리부터 기반마련,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자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애로까지 공백없는 '원스톱 처리'로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180일까지 소요됐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 답변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 및 정착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총괄)을 통해 공장설립 등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ok.kr), 카카오톡 채널(jok), 콜센터(063-711-2114)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임상규 행정부지사, 남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 현장점검

22일 남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 4개소 방문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2일 오후 1시부터 남원시 터미널 주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소규모 주차공간 확충, 어르신 체육시설과 쉼터 조성 및 거점시설 조성 추진현황을 둘러봤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 SOC확충과 역사, 문화와 예술 등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구 남원역과 구 남원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자 2017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조성된 사랑나눔어울림센터와 청년창업공간을 방문해 입주한 청년기업 및 사회적기업 주민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창업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희하 대표는 "청년들이 창업

하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건의드린다"며, "카페·음식점, 판매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를 말했다.

행정부지사는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창업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에서 카페나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남원시는 2017년 선정된 남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5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2018년 선정된 동충동 일원은 건강생활지원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 중인 남원이음센터 조성과 2020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구 미도당 문화저장소 리뉴



임상규 부지사가 22일 오후 1시부터 남원시 터미널 주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얼 사업이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된 향교동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금동·천거동 일원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는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을 지역거점으로 탈바꿈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공간을 확대해 청년이 모여 주민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남원=김기우 기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군산시 소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담당자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가 작년 12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일선에서 일하는 시군 공무원 및 지원조직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지원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도 금융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해 14개 시·군 사회적경제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정부 및 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설명, △14개 시군 지원조직 및 업무 공유, △혁신타운 시설 안내 및 2024년 신규 지원사업 안내, △지원 조직 및 기업 간 협력사업 및 민생 활력 시책 발굴 논의였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가치지표 고도화 지원사업' 등 2024년 도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14개 시군 지

원 조직 간 업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써 더욱 거듭나기 위해 혁신타운 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적경제 국제 박람회에 따라 현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후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발족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타운은 도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초 선정된 후, 2023년 1월 개관한 사회적경제 혁신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 입주기업 사무공간 지원(24개실), 혁신타운 내 시제품 제작 및 라이브커머스 공간 등을 활용한 사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